

#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척도 개발

성 경 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Development of a Self-evaluation Scale to Measure Self-concep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ung, Kyung Mi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for measuring self-concep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self-evaluation form. **Method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elected from five schools in urban areas ( $n=2,407$ ). The scale developmental processes included construc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 of preliminary items,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of final items. **Results:** There were no items deleting and resulting 80 final items including 4 subscales: Physical self-concept (20 items); Emotional self-concept (20); Social self-concept (20); and Academic self-concept (20).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acceptable (Cronbach's  $\alpha=.97$ ). The scale classification provides a description of self-concept degree from very positive to very negative. In this study, self-concep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 $-0.77 \leq r \leq -0.51, p < .001$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not only for measuring self-concept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also for understanding their self-concept development. However, repeated research is needed for further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of this measurement tool.

**Key Words:** Self-evaluation, Self-concept, Children, Adolescents, Methodology researc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개인은 주관적인 자아경험을 통해 자기존재를 인식하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를 자아개념이라 한다. 이 자아개념은 '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으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고 본다(Song, 1989). James (1980)는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아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경험적 차원에서 네 가지의 자아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그는 자아의 일부가 개인이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 학교 등이 아이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Song, 1989).

자아개념과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녀의 자아개념이 발달하였고, 자아개념이 강할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9; Shin & Moon, 2009). 또한, 다른 연구보고에는 취약한 자아개념은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상

**주요어:** 자가평가, 자아개념, 아동, 청소년, 방법론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Sung, Kyung Mi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2 Chilam-dong, Jinju 660-751, Korea.  
Tel: +82-55-772-8246, Fax: +82-55-772-8222, E-mail: sung@gnu.ac.kr

투고일 2012년 9월 10일 / 수정일 2012년 11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29일

태와 관련성이 높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매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개념이 개인의 정신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im, Kim, Yoo, & Shin, 2011; Lee & Jung, 2012; Wild, Flisher, Bhana, & Lombard, 2004). 그 외에도 1980년대 이후부터 보고된 여러 연구들에서 성별, 인종, 외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낮은 자아개념 형성은 우울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athi-Ashtiani, Ejei, Khodapanahi, & Tarkhorani, 2007; Modrcin-Talbott, Pullen, Ehrenberger, Zandstra, & Muenchen, 1998; Robles-Pina, Defrance, & Cox, 2008; Siegel, Yancey, Aneshensel, & Schuler, 1999). 즉, 우울정도가 자아개념 발달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는 자아발달을 통해 부모로부터 정신·심리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는 시기로 지적능력과 사고능력이 왕성하게 발달하고 심리성적으로도 성숙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성장발달기이다(Lee et al., 2004). 특히, 바람직한 자아개념의 형성은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인 동시에 주위 환경과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주요한 개인의 내적인자로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성장발달의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반복하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Choi & Kim, 2011). 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은 아동기의 성격형성과 이후의 정서발달에 안정감을 주며 미래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Kim, 2010).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자아개념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속성이 되는 자아개념에 관한 관심과 간호학적 접근은 미진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아개념 도구 개발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Chung (1996)은 1968년도에 코리안 테스트 센터에서 발행한 4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자아개념 검사지를 이후 5개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Song (1994)은 자아개념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도구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도구는 주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일부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들은 개발한지 15년이 지났으며 Song (1994)의 자아개념 도구는 문항이 많고 하부개념이 복잡하여 대상자 중재를 위한 평가도구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Chung의 도구 역시 하부개념

중 심리정서적 자아개념이 빠져있어 정신건강 평가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는 사용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일부 문항을 자아개념 도구로 사용한 선행문헌들(Choi & Kim, 2011; Kim et al., 2011)이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평가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자아개념 연구로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 그 외 최근 일 연구에서 외국 자아개념 도구를 사용하여 미국 여자 청소년에 비해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것이 있는데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 간에 학업자아개념이나 가족자아개념 등에서 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Sung, 2011). 따라서 연구자는 최근 사이버를 통해 과거와 다른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한꺼번에 접하며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심리발달이 과거와 다르고 자아발달과 관련된 일부 요인들도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여러 선행연구와 최근 자료 등을 토대로 자아개념의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고 측정도구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학교별로 매년 실시되는 신체발달 및 체력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신심리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아발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자가평가 형태로 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자아발달을 직접 평가해 봄으로써 자신의 자아발달 상태에 따라 발달증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아개념 측정도구 문항을 개발한다.
-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과 3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전수였다(총 2,407명). 단 문항개발과정은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한 경기도 지역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 속한 학생들 중 참여를 희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n=220$ ).

## 3. 연구도구

### 1)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 내에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것(심리자아), 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 혹은 타인의 반응을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비교하며 형성해가는 것(신체자아),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인식(사회자아),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이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실제 성취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학업자아) 등의 4개 하부개념과 이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자아개념 영역으로 측정된다(Bracken, 1992).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차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일차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모두 80문항 3점 척도로 심리자아, 사회자아, 학업자아, 신체자아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3개의 문장을 주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1점에서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이었다.

### 2) 아동 우울

우울은 주관적인 슬픔이나 불행감으로 불행한 기분이 만연하는 정서상태를 말하며 본 연구의 도구는 Kovacs (1981)의 우울척도(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CDI)를 국내에서 Cho와 Lee (1990)가 번안한 한국형 소아우울척도로 일부 역채점 문항만 순채점 문항으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2주간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문항별 3개의 서술문에서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자기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 이 도구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였다. 또한, 우울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Shin (2001)의 일반정신건강평가도(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0, KGHQ-20)의 우울요인 4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우울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다.

### 3) 청소년 우울

청소년 우울은 Chon과 Lee (1992)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한국어로 번안한 20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0 (전혀 없었다)에서 3 (매일 있었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또한, 청소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Reynolds (2002)가 개발하고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30문항 4점 척도의 RADS-2-K (The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2nd edition-Korea)를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우울과 비우울의 절단점은 76 (T-score: 원점수 25점)이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2월 16일까지 서울·경기도와 전국 대도시 소재한 12개 일반 초·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중 최종 연구참여를 수락한 5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2,407명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하고 2,39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가정통신문과 부모동의서 및 학생동의서를 전달 및 수거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한 일차 설문조사는 훈련된 2명의 설문조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이 직접 읽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질문사항이 있을시 바로 답변해 주도록 하였다. 설문자료는 통계분석 과정을 거쳐서 우울점수에 따라서 자아개념범주를 정하고 자기평가 기준표를 작성한 후 제차 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동일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에게 직접 자신의 자아개념 점수를 계산하고 자기평가 기준표를 이용해서 자아

개념 발달 수준을 확인하게 한 후 평가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평가의 용이성과 자신의 자아발달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5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소요시간은 설문지 응답이 개인당 약 20분, 자가평가 및 평가결과 해석이 약 15분 정도로 총 35분이었다.

## 5. 연구진행

###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1년 9월 G대학 생명윤리 심의위원회(GIRB-G2011-0016)의 승인과 연구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들만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이 직접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서면 동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부모들에게는 전화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 2)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개념적 기틀

자아개념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Bracken (1992)은 가족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능력의 자아개념 등 6개의 하부영역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중복되어 전체를 포괄하는 자아개념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Piers, Harris와 Herzberg (2002)의 도구는 가족개념 외의 나머지 5가지 하부영역을 포함하였다. 또한, Roid와 Fitts (1988)는 학업개념을 제외한 5가지 하부영역, Marsh (1992)는 초기에는 능력개념과 심리개념 외의 4가지 하부영역을, 이후에는 Marsh, Ellis, Parada, Richards와 Huebeck (2005)가 능력개념 외의 5가지를 자아개념의 하부영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Song (1994)이 자아개념을 학문 자아개념(학급, 능력, 성취), 중요타인 자아개념(사회, 가족), 정의 자아개념(정서, 신체)의 3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자아개념특성 척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하위개념 간 의미의 중첩을 줄이고 여러 자아개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학업 자아개념, 심리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의 4가지 하위영역과 이들을 모두 합친 전체 자아개념의 개념적 기틀을 이용해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Figure 1).

### 3) 도구의 문항 개발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

연구자는 먼저 자아개념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헌고찰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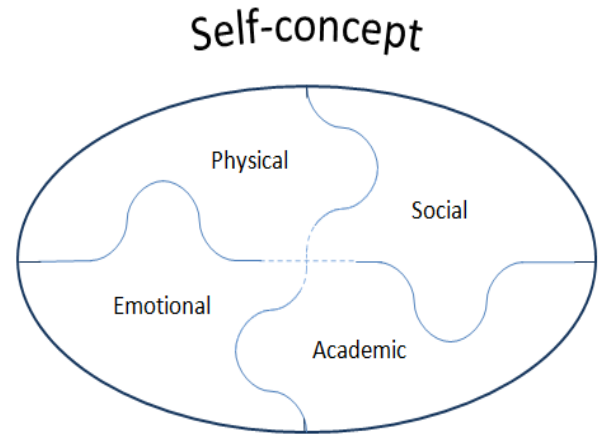


Figure 1. A conceptual framework of self-concep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행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문항을 바탕으로 심리자아, 사회자아, 학업자아, 신체자아의 개념을 나타내는 102개의 설문문항을 진술하고 초중학생 각각 2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문항 중 이해가 어려운 문항을 표시하도록 한 후 5개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40분간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20분간 질문에 답한 후 40명의 학생을 5명씩 8그룹으로 나누어 102개 문항 이외에 각 하부개념별로 자아개념을 의미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13개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어 모두 115개 문항이 되었다. 다음으로 40명 이외의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115개 문항에 대해 ‘나와 상관있다’, ‘나와 상관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95% 이상의 학생이 ‘나와 상관없다’로 응답한 22개 문항은 2인의 전문가와 연구자가 패널토의를 거쳐서 삭제하였다.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93문항 중 국문학자 2인에게 중복되었거나 유사한 것으로 일치된 문항 7개는 삭제 또는 통합한 후 결정된 86문항의 문장 표현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2인, 교수 2인, 교사 4인 등 모두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평가표(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4개 하부영역별로 문항수 배열을 고려하여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점 척도에서 3, 4점 이상으로 CVI 계수가 0.7 이상인 항목으로 최종 심리자아 20문항, 사회자아 20문항, 학업자아 20문항, 신체자아 20문항 등 총 80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80개 문항은 각각 3개의 문장으로 진술되었으며 문장 간의 간격이 적절한지 다시 국문학자 2인에게 검증을 받았다. 모든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표



현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제시된 3개의 문장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1점에서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순문항으로만 구성하였다.

#### 4) 도구의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

아동·청소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자아개념의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또한,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80개 문항들이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한 4개의 하부개념별로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요인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 5) 우울정도를 이용한 준거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상관관계가 높고 측정이 용이한 우울정도를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사용하였다. 즉,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발달기적 특성상 어느 정도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우울하지 않은 상태부터 우울정도가 경미한 상태까지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고 우울정도가 보통부터 높은 수준은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 6) 자아개념 범주 개발

아동·청소년의 자아개념 범주(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를 결정하는 절단점(cut off score)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우울척도를 이용하였다. 먼저 아동의 경우는 Kovacs (1981)의 우울척도(CDI)를 국내에서 Cho와 Lee (1990)가 번안한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점수(22점 이상은 우울상태)와 일반 정신건강 평가척도(KGHQ-20)의 우울 점수(4문항 중 3문항 이상 우울하다고 반응)가 일치하는 대상자의 자아개념 점수를 이용하였다. 즉, 두 개의 척도에서 모두 우울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자의 우울점수를 CDI의 우울정도 평가기준(매우 심한 우울: 29점 이상, 심한 우울 상태: 26~28, 약간 우울상태: 22~25점, 우울하지 않음: 21점 이하)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범주를 결정하는 절단점을 구하였다.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우울(CES-D: 13점 이상 우울 상태) 척도와 Reynolds (2002)의 한국판 우울척도(RADS-2-K: 25점 이상 우울상태)의 결과가 일치하는 대상자의 우울점수를 RADS-2-K의 우울 정도 평가기준(89~120점: 심한 우울 상태; 82~88점: 보통 우울 상태; 76~81점: 약간 우울 상태; 30~75점: 정상범주)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개념 범주를 결정하는 절단점을 구하였다. 요약하면 아동과 청소년별로 각각

두 가지 우울척도에서 모두 우울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자의 우울수준을 1부터 4까지 수준으로 나누고 각 우울 수준별로 대상자의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자아개념 범주를 결정하는 4개의 절단점으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모두 5개 범주로 나누었다.

#### 7) 자가평가를 위한 도구개발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자들이 체력평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아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자아발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설문문항, 채점 및 점수산정 방법, 결과해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우울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자아개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자아개념 범주, 기타 자가평가의 용이성과 결과 해석 경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별과 학년별 분포

본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학생 총 2,391명으로 남학생 1,149명(48.1%), 여학생 1,242명(51.9%)이었고, 초등학생이 1,174명(49.1%), 중학생이 1,217명(50.9%)이었다. 대상자 부모의 학력은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아버지 1,483명(69.3%), 어머니 1,354 (63.0%) 정도가 대졸 이상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절반 이상(50.3%)의 아버지 직업이 사무직이었으며, 가정경제수준은 대부분(72.8%)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 2. 아동·청소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아동·청소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자아개념 총 80문항의 C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 자아개념 전체 척도와 각 문항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N=2,391$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149 (48.1)
	Female	1,242 (51.9)
School grade	Grade 4	349 (14.6)
	Grade 5	427 (17.9)
	Grade 6	398 (16.6)
	Grade 7	410 (17.1)
	Grade 8	387 (16.2)
	Grade 9	420 (17.6)
Father's education	≤ High School	657 (30.7)
	≥ 3 year college	1,008 (47.1)
	≥ Graduate school	475 (22.2)
Mother's education	≤ High school	796 (37.0)
	≥ 3 year college	934 (43.5)
	≥ Graduate school	420 (19.5)
Father's job	Profession	316 (14.0)
	Office worker	1,140 (50.3)
	Salesperson	258 (11.4)
	Production worker	503 (22.2)
	Unemployed	48 (2.1)
Mother's job	Profession	403 (17.6)
	Office worker	578 (25.2)
	Salesperson	416 (18.1)
	Production worker	114 (5.0)
	Unemployed	782 (34.1)
Household economic status	Low	173 (7.3)
	Middle	1,717 (72.8)
	High	468 (19.9)

이 판별하려는 것이 동일한 것인지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상관계수가 최소 .34에서 최대 .76으로 나타났다(Table 2). 기타 자아개념 영역별 신뢰도는 학업자아 .91, 신체자아 .90, 사회자아 .90, 그리고 심리자아 .95였다.

### 3. 아동·청소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표본인지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83$ ,  $\chi^2=5982.69$ ,  $p<.001$ ). 자아개념 8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하였으며, 문항 선택 기준은 문

항별 공통성이 0.3 미만이거나, 분류된 요인들에서 문항의 가장 큰 요인적재량이 0.5보다 적은 문항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단, 가장 큰 요인 적재량과 두 번째 큰 요인적재량의 차이가 0.2 이상인 것은 포함하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이지만, 두 번째 큰 요인 적재량과의 차이가 0.2 미만인 문항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80개 문항은 4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하위개념별로 탈락된 문항없이 모두 유지되었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총변량의 54.5%를 설명하였다(Table 3). 또한,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우울점수를 준거로 검증되었다.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우울정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자아개념은 KGHQ-20의 우울문항( $r=-.53$ ,  $p<.001$ ) 점수와 CDI ( $r=-.77$ ,  $p<.001$ )의 점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아개념 역시 우울점수인 CES-D ( $r=-.61$ ,  $p<.001$ )와 RAD-2-K ( $r=-.51$ ,  $p<.001$ ) 점수와 각각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 자아개념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았고 자아개념의 하부영역인 학업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자아개념의 모든 영역에서도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아동·청소년 자아개념 척도의 범주개발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에서 우울척도가 자아개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근거로 대상자의 우울 수준에 따라 자아개념의 범주를 결정하는 4개의 절단점(cut off score)을 만들었다. 두 개의 우울척도가 일치하는 비율은 아동의 경우 98.5%, 청소년의 경우 96%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186점 이상, 아동 203점 이상은 매우 긍정적인 자아개념; 청소년 163점 이상부터 185점 이하, 아동 153점 이상부터 202점 이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청소년 153점 이상부터 162점 이하, 아동 128점 이상부터 152점 이하의 보통의 자아개념; 청소년 139점 이상부터 152점 이하, 아동 120점 이상부터 127점 이하는 부정적인 자아개념; 청소년 138점 이하, 아동 120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자아개념 범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연구대상자들은 청소년보다 아동의 경우 자아개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범주는 청소년은 70% 이상(857명), 아동은 87% 이상(1,031명)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였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아동이 1.2%(14명) 정도인데 반해 청소년은 16.1%(196

**Table 2.**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d Cronbach's  $\alpha$ 

Categories	Item No.	Content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Academic self-concept	1	Studying is easy.	.65	.90	.91
	2	I am good at writing.	.43	.91	
	3	I am good at math.	.53	.90	
	4	Easier to study than friends.	.66	.90	
	5	Feel foolish sometimes.	.55	.90	
	6	Science is easy.	.55	.90	
	7	Teachers don't care about me.	.45	.91	
	8	Comfortable at school.	.45	.91	
	9	Good studying habit.	.60	.90	
	10	Study hard.	.60	.90	
	11	Lots of good ideas.	.46	.91	
	12	Most subjects are easy.	.71	.90	
	13	Well understanding on reading.	.51	.91	
	14	Proud of my grade.	.59	.90	
	15	Teacher estimates me well.	.57	.90	
	16	Usually prepared for class.	.40	.91	
	17	Fairly on test.	.70	.90	
	18	Friends want to study with me more.	.51	.91	
	19	Studying speed is fast.	.61	.90	
	20	Friends like my opinion.	.42	.91	
Physical self-concept	21	I am very attractive.	.55	.90	.90
	22	I like my image in the mirror.	.67	.89	
	23	Don't get tired easily.	.46	.90	
	24	Similar with other people.	.40	.90	
	25	My teeth are polished.	.36	.90	
	26	All clothes look good on me.	.58	.90	
	27	I am healthy.	.43	.90	
	28	My appearance is common.	.68	.90	
	29	Good at most sports	.50	.90	
	30	Popular in sports team.	.45	.90	
	31	My body is appropriate.	.60	.89	
	32	My hair looks nice.	.55	.90	
	33	My skin is attractive.	.56	.90	
	34	Look nice in swimsuit.	.53	.90	
	35	My weight is appropriate.	.45	.90	
	36	Want to keep my appearance.	.57	.90	
	37	Have lots of energy to work.	.47	.90	
	38	Feel shameful but don't try to hide.	.55	.90	
	39	I am handsome.	.69	.90	
	40	Common in fashion.	.59	.90	
Social self-concept	41	I am not shy.	.34	.90	.90
	42	Happy staying with other people.	.57	.90	
	43	People ignore me.	.62	.90	
	44	Have close friends.	.48	.90	
	45	Going school is happy.	.60	.90	
	46	Usually approved by people	.63	.89	
	47	People care about me.	.65	.89	
	48	Often feel being alone.	.60	.89	
	49	People like me.	.65	.89	
	50	Comfortable staying with strangers.	.42	.90	
	51	Get phone call from friends.	.45	.90	
	52	Friends know about me.	.54	.90	
	53	Parents and teachers know about me.	.45	.90	
	54	Have a sense of humor.	.46	.90	
	55	Express my thoughts to people	.62	.89	
	56	Make mistakes when I speak.	.45	.90	
	57	Friends bother me.	.44	.90	
	58	Fun to mingle with people.	.51	.90	
	59	People like to stay with me.	.65	.89	
	60	People estimate me right.	.61	.89	

**Table 2.**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d Cronbach's  $\alpha$  (Continued)

Categories	Item No.	Content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Emotional Self-concept	61	I am happy.	.76	.95	.95
	62	Everything goes well.	.73	.95	
	63	Feel bad.	.74	.95	
	64	I am not afraid.	.62	.95	
	65	I am sad.	.61	.95	
	66	Have bad thoughts.	.59	.95	
	67	I am a good person.	.62	.95	
	68	I like myself.	.76	.95	
	69	I am proud of myself.	.75	.95	
	70	Feel lethargic.	.66	.95	
	71	I am not ashamed.	.72	.95	
	72	My feelings are normal.	.74	.95	
	73	My life is worthful.	.72	.95	
	74	Can control my feelings.	.59	.95	
	75	Have a courage.	.57	.95	
	76	My mind is comfortable.	.75	.95	
	77	Have energy to live on.	.65	.95	
	78	My mind is healthy.	.76	.95	
	79	I am positive.	.65	.95	
	80	Feel anxiety.	.73	.95	

**Table 3.** Factor Analysis of Self-concept Items

Variab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mot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Physical self-concept
Eigen value	8.97	7.99	6.03	6.01
Explained var. (%)	18.31	14.22	11.26	10.71
Accumulative var. (%)	18.31	32.53	43.79	54.51

var.=variance.

명) 정도로 아동보다 많았다.

나는 질문에는 전체 대상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 15%, '조금 알고 있다' 25.9%, '모른다' 59.1%로 응답하였다.

## 5. 아동·청소년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척도 이용의 용이성 및 평가결과 해석 경향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아개념 척도의 문장이 이해하기 '쉽다' 67%, '보통이다' 32%, '어렵다' 1%로 응답하였으며, 자가평가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쉽다' 58%, '보통이다' 34%, '어렵다' 8%정도였다. 자신의 자아개념 평가결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청소년(아동)이 '나의 자아개념 발달 수준은 좋은 편이다' 59%(74.2%), '그저 그렇다' 19.6%(16%), '나쁜 편이다' 21.4%(9.8%)로 응답하였다. '나는 긍정적인 자아발달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에 대해서는 전체대상자가 '매우 그렇다' 36%, '그렇다' 46.2%, '아니다' 17.8%로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자아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자아개념은 대부분의 문헌에서 다속성을 포함한 내적구조를 가지고 여러 하부요인들의 관계에 따라 설명되는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차원의 모형으로 보고 있다(Bracken, Bunch, Keith, & Keith, 2000; Song, 1994). Bracken (1992)도 다면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하위개념으로 가족자아와 능력자아를 포함한 6가지 자아영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이 도구를 사용해본 결과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자아는 경험이 빈곤하여 응답하기 힘들어 하였고 오히려 가족관계의 경험을 다른 심리, 신체, 학업자아 등에 반영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능

## 논 의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struments	Child		Adolescent	
	KGHQ-20	CDI	CES-D	RAD-2-K
	r (p)	r (p)	r (p)	r (p)
Total self-concept	-.53 (< .001)	-.77 (< .001)	-.61 (< .001)	-.51 (< .001)
Academic self-concept	-.42 (< .001)	-.65 (< .001)	-.44 (< .001)	-.32 (< .001)
Physical self-concept	-.46 (< .001)	-.67 (< .001)	-.44 (< .001)	-.39 (< .001)
Social self-concept	-.46 (< .001)	-.68 (< .001)	-.49 (< .001)	-.39 (< .001)
Emotional self-concept	-.54 (< .001)	-.75 (< .001)	-.66 (< .001)	-.58 (< .001)

**Table 5.** Self-concept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elf-concept of adolescent			Self-concept of child		
	Score range	n (%)	M±SD	Score range	n (%)	M±SD
Very positive	≥ 186	422 (34.7)	203.7±12.31	≥ 203	453 (38.6)	220.5±11.35
Positive	163~185	435 (35.7)	169.4±6.72	153~202	578 (49.3)	181.8±12.68
Average	153~162	163 (13.4)	157.5±1.54	128~152	126 (10.8)	141.6±5.64
Negative	139~152	132 (10.8)	146.0±3.90	120~127	3 (0.3)	124.3±3.79
Very negative	≤ 138	64 (5.3)	124.9±12.37	≤ 120	11 (0.9)	102.7±13.77
Total	80~240	1217 (100)	176.4±24.12	80~240	1174 (100)	193.7±26.11

Note. Total *N* included no response of one adolescent and three children.

력자아는 학업자아개념과 경계가 모호하여 응답에 혼돈을 주어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ng, 2011). 또한, We와 Park (2011)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 경험인 부모로부터 형제와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적 양육을 받은 결과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이 서구와 우리문화가 다른 것과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해 높은 학력위주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근거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하위개념 간 의미의 중첩을 줄이고 여러 자아개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전체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하부개념으로 심리자아, 사회자아, 신체자아, 학업자아의 4개 영역을 두고 문항을 개발 및 평가하였다. 자아개념 도구의 내용은 4개의 하부영역별로 20개 문항으로 진술되었고 이들 문항을 모두 합친 80문항이 전체 자아개념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도구의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문항개발과 문항선정 과정에 전문가 타당도로 검증하였으며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4개 하부영역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

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하부개념은 탈락된 문항 없이 각각 20개의 문항이 유지되어 개념별로 독립적인 측정도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도구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타당도는 준거타당도로 검증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에서 자아개념은 우울점수와 유의하게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문헌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측정에 타당한 도구임을 보여주었다(Fathi-Ashtiani et al., 2007; Modrcin-Talbott et al., 1998; Robles-Pina et al., 2008; Siegel et al., 1999). 또한, 이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서 자아개념의 4개 하부개념별로 탈락된 문항 없이 각각 20개의 문항이 유지되어 각 개념별로 독립적인 측정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자아개념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낮을수록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아개념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구의 동시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던 우울점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문헌고찰에 근거한 결과였다(Cho & Lee, 1990; Reynolds, 2002). 자아개념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은 자아개념 평

## 결론

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아발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자아발달을 동기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척도를 이용하여 전체 자아개념을 아주 긍정적인 상태에서 아주 부정적인 상태까지 모두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자아개념의 범주를 제시한 국내 연구는 없었으며 외국 도구 중 Bracken (1992)의 다면적 자아개념 측정도구에서 7개의 자아개념 범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자 중심의 기준이며 자아개념의 극단적 상태까지 세분화한 척도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는 부적합한 것이다. 즉,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평가가 가능한 도구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추후 자가중재 프로그램 평가에 용이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아개념 범주를 단순화하였다. 그 외에도 자아개념 척도의 범주는 후속 연구에서 자아발달 중재 대상자를 선별하고 발달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에게 자가평가의 용이성과 이해수준을 평가한 결과 설문문항의 이해가 어렵다고 느낀 경우는 1%로 소수였으나 자가평가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8% 정도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추후연구에서 자가평가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가평가 결과의 해석경향은 실제 매우 긍정적인 자아개념 수준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저 그렇거나 나쁘다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아발달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0% 이상으로 많았던 점은 자아발달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 외 자아발달을 위한 방법에는 대상자의 거의 절반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추후 자아발달을 위한 자가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도구개발과 달리 자가평가가 가능한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한 점과 평가를 통해서 자아발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주로 대도시에서 사는 중년 경제층으로 편중되어 있어 도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나 경제수준별 층화추출법을 이용한 일반화가 가능한 대상자 표본을 선정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반복해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개념 척도의 범주를 우울 이외의 관련 개념을 사용해 보다 정련화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자가평가를 위한 자아개념 범주 개발과 척도 사용의 용이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해석 경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의 자아개념 도구는 총 80문항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학업적 자아개념 등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의 범주는 80~240점이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7로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하부영역별 신뢰도도 .90~.95로 높았다. 또한, 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도구를 사용해 동시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자아개념은 우울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아동·청소년들이 자가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아개념 범주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위해 대상자의 우울점수를 이용해서 절단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자가평가 척도로서 자신의 자아개념 상태를 아주 부정적인 상태에서 아주 긍정적인 상태까지 5개 범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기존의 도구와 달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아발달을 직접 평가해보고 자신의 자아발달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정신건강평가 도구로 용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 도구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추후 자아발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Bracken, B. A. (1992). *Examiner's manual for the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 scale*. Austin, TX: Pro-Ed.
- Bracken, B. A., Bunch, S., Keith, T. Z., & Keith, P. B. (2000). Child and adolescent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A five instrument factor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37*, 483-493.
- Cho, S. C., & Lee, Y. S. (1990). A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depression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43-956.
- Choi, J. W., & Kim, H. J. (2011). Domestic violence affects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73-103.
- Chon, K. K., & L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 65-76.

- Chung, W. S. (1996). *Self-concept scale*. Seoul: Seoul Korean Testing Center.
- Fathi-Ashtiani, A., Ejei, J., Khodapanahi, M. K., & Tarkhorani, H. (2007).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self-esteem, anxiety,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ciences*, 7, 955-1000.
- James, W. (198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Kim, J. S., Kim, S. C., Yoo, S. K., & Shin, A. W. (2011). Factors influencing stress levels of adolescents: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positive self-concept and self-confid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103-126.
- Kim, M. Y. (2010). *The development of child*. Seoul: Jungmins.
- Kovacs, M. (1981). Rating scale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ee, C. J., Sung, H. R., Song, K. Y., Yoon, H. K., Kim, H. L., Lee, M. S., et al. (200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fancy to adolescence*. Seoul: Pakhaksa.
- Lee, E. J., & Jung, I. J. (2012). Predictors of deviant self-concept in adolescence and gender differences: Applying a latent-state trait autoregressive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5-29.
- Lee, J. H., & Kim, J. O. (2009).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on thei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children's self-concepts.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hip*, 14(3), 61-89.
- Marsh, H. W. (1992).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II: Manual. Australia: Faculty of education*.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Western.
- Marsh, H., Ellis, L., Parada, R., Richards, G., & Huebeck, B. (2005). A short version of the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II: Operationalizing criteria for short-form evaluation with new applications of confirmatory analyses. *Psychological Assessment*, 17, 81-102.
- Modrcin-Talbott, M. A., Pullen, L., Ehrenberger, H., Zandstra, K., & Muenchen, B. (1998). Self-esteem in adolescents treated in an outpatient mental health setting.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1(3), 151-171.
- Piers, E. V., Harris, D. B., & Herzberg, D. S. (2002). *Manual for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2nd ed.).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Reynolds, W. (2002).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2nd ed.).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Robles-Pina, R. A., Defrance, E., & Cox, D. (2008). Self-concept, early childhood depression and school reten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in urban hispanic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9, 426-441.
- Roid, G. H., & Fitts, W. H. (1988). *Tennessee self-concept scale, revised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hin, H. L., & Moon, H. J. (2009).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s sense of identity and peer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hildren Studies*, 30(4), 33-46.
- Shin, S. I. (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9), 210-235.
- Siegel, J. M., Yancey, A. K., Aneshensel, C. S., & Schuler, R. (1999). Body image, perceived pubertal timing,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2), 155-165.
- Song, I. S. (1989). The developmental and differentiated changes in dimensionality self-concept across ag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7(1), 85-103.
- Song, I. S. (1994). The dimensionality of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47-68.
- Sung, K. M. (2011). Self-concept and coping skills of female early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School Nursing*, 27, 364-371.
- We, H. A., & Park, S. Y. (2011). Comparing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academic self-concept in adolescent siblings: The mediating role of differential maternal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 17-25.
- Wild, L. G., Flisher, A. J., Bhana, A., & Lombard, C. (2004). Associations among adolescent risk behaviors and self-esteem in six domai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1454-1467.